한국유기농업학회지 제14권 4호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Volume 14, Number 4: 361-383, December 2006.

친환경농업 및 농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발전전략*

김 호** · 허 승 욱***

Development Issues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related to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and Green Tourism

Kim, Ho · Heo, Seung-Wook

The works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SEZone) have been promoted for developing the regional economy corresponding with its own peculiarities by not national, but local level of government. Namely, those set the goal at specialized development of regions through an appeasement policy against regulations. So local governments must originate the local works, get financial sources by itself, and then revitalize the regional economy. The policies of many local governments aim at increasing farmers' income by developing rural society to cope with open economy system. By the way they have tried to revitalize agriculture and rural society by promoting actively the works of SEZone through an appeasement policy against regulations. And it is important to search for specialized factors based on regional resources, and to make connected with them together so as to obtain good results in the works of SEZone. This study examined regulations related to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and green tourism. And it researched about the effect of SEZone works on regional economy and develops indices of result estimation. So schemes for strategies for increasing demand and development issues were presented.

Key words :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green tourism*

* 이 연구는 「농림업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모델 개발」(2006)의 일부임.
** 대표저자, 단국대학교 교수
*** 단국대학교 교수

Ⅰ. 서 론

지역특구사업은 지금까지의 지역경제 발전대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옴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부합되는 발전 전략의 추진이 곤란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즉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규제완화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의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개방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많은 지자체는 농정의 방향을 농촌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에 두고 있다. 그래서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특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업·농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부존자원에 기초한 특화요소를 최대한 발굴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농림업 관련 특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 검토하고,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림업 관련 특구 중 친환경농업 및 농촌관광과 관련된 특구의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농림업 관련 규제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마케팅 전략과 특화요소의 배치를 통한 발전모형 및 추진전략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Ⅱ. 농림업 관련 지역특구의 유형 구분과 특징

1. 농림업 관련 지역특구의 지정 현황

2006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개최된 특구위원회에서 지정된 지역특구는 총 48개이었다. 이 가운데 농림업 관련 지역특구[1]로 임의 분류된 사례는 24개이다. 충북과 전북, 경북이 각각 6개이고, 경남이 4개이며 경기와 충남이 각각 1개씩이었다. 충북 옥천과 전북 고창은 각각 2개의 지역특구를 지정받았다. 그런데 전남 및 강원, 제주, 서울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농림업 관련 특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업 관련 지역특구별 특화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특화작목을 기반으로 하여 재배단지 및 유통시설 등 생산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고품질화 및 가공식품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현재의 재배단지를 규모화 및 단지화할 뿐 아니라 유통·가공시설 즉, 종합처리장이나 저온저장고, 산지유통센터, 가공공장,

1) 농림업 관련 지역특구란 기본적으로 농산물생산을 기반으로 하며 농촌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특구로 규정함.

전시 판매장, 시장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특구 추진을 통해 상품화된 농산물의 홍보를 위한 브랜드 활성화 또는 강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지역 통합브랜드의 홍보, 지역 상품의 브랜드 강화, 브랜드 명품화, 브랜드 세계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

셋째, 도시 소비자들이 방문 및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체험마을이나 테마마을, 문화거리, 밸리, 경관 등을 조성하고, 특구별 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축제를 개최하고자 한다. 축제에 참가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의 홍보와 직판을 추진하고 있다.

2. 유형분류 기준의 설정 및 분류

재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서는 전체 특구를 그 특성에 따라 교육특구, 산업/연구개발(R&D)특구, 의료/사회복지 특구, 관광·레포츠 특구, 향토자원 진흥특구, 유통/물류특구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에 의하여 농업관련 특구는 대부분 향토자원 진흥특구 또는 유통/물류특구에 포함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구들이 산업의 특성과 성격을 반영하여 유형화된데 비하여 농업관련 특구는 분류의 유형 자체가 자원 활용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고, 표현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하여 그 성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토자원 진흥특구라고 명명하기 보다는 농업·농촌 발전특구로 명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업 관련 특구의 유형구분이 어려운 점은 신청된 대부분의 특구대상지역이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특화발전을 위한 특화요소가 단일한 요소가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소를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특구 신청 및 지정이 보다 국가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특구지정의 남발로 인한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정된 농림업 관련 특구를 유형별로 분류함으로써 '추세와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림업 관련 특구의 유형별 특징과 주요 구성요소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지속될 특구지정계획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농림업 관련 특구의 유형은 특구사업의 추진방향과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농림업 관련 특구의 경우, 단일한 테마를 주제로 한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테마를 복합화·다양화시킨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귀속 가능한 부가가치 창출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즉, 수려한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특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도 농업·농촌과의 직접적인 상호 연관관계가 없거나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미미한 경우,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치가 농업·농촌으로 귀결되지 않는 경

우 등은 유형분류에서 제외하였다.

농림업 관련 지역특구별 특화사업의 유형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농산물 생산·가공·유통특구와 농촌관광·친환경농업특구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분류의 대상이 되는 총 24개 특구 중에서 농산물 생산·가공·유통특구는 모두 18개소로 농림업 관련 특구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관광·친환경농업특구는 6개소로서 25%를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가공·유통특구의 점유비중이 높은 것은 농림업 관련 특구들의 대부분이 농산물 생산을 기본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1〉 농림업 관련 지역특구의 유형분류

구 분		특 구 명 칭	개소
농산물 생산·가공·유통특구	과실류 및 과채류	충북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전북 완주 포도주산업특구, 경북 김천 포도산업특구, 충북 충주 사과특구, 전북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경북 상주 곶감특구, 경북 성주 참외산업특구	7
	한방 및 약초, 차류	충남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충북 제천 약초웰빙특구, 전북 진안 홍삼한방특구, 경남 하동 야생녹차산업 특구 경남 산청 지리산약초 연구발전특구, 경남 함양 지리산약초 건강식품특구, 경북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경북 영천 한방진흥특구	8
	장 류	전북 순창 장류산업특구	1
	임 산 물	충북 옥천 묘목산업특구, 충북 옥천 옻산업특구	2
	소 계		18
농촌관광·친환경농업특구		경남 남해 귀향마을 특구, 전북 고창 경관농업특구, 전북 남원 지리산웰빙 허브산업특구, 경기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충북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경북 영양 반딧불이 생태체험마을특구	6
계			24

이 가운데 농촌관광·친환경농업특구는 농촌관광과 친환경농업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을 꾀하고 있는 특구 유형으로 경남 남해 귀향마을 특구, 전북 고창 경관농업특구, 전북 남원 지리산웰빙 허브산업특구, 경기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충북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경북 영양 반딧불이 생태체험마을특구 등 6개소이다.

농촌관광·친환경농업특구는 농촌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농촌문화의 체험 등을 특화하여 지역발전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유형별로 다시 농촌관광중심형, 생산연계

형, 체험중심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농촌관광중심형은 지역적으로 분포된 자연경관이나 문화재를 활용하여 특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형태로 전북 고창 경관농업특구, 경북 영양 반딧불이 생태체험마을특구 등이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토산품 체험관 건립, 휴양공간 조성, 자연생태 레저공간 조성, 다양한 관광산업과의 연계 육성 등이다.

둘째, 생산연계형은 지역의 청정성, 친환경적인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함께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림축산물과 연계하여 특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형태로 전북 고창 경관농업특구, 전북 남원 지리산웰빙 허브산업특구, 경기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충북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휴양타운 조성, 생산기반 현대화 및 시설 확충 등이다.

셋째, 체험중심형은 휴양 및 레저까지를 포함하며, 도농교류, 농촌체험을 주요 테마로 특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형태로 경남 남해 귀향마을 특구가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체험농촌마을 조성, 민박지구 내 숙박시설 설치, 실버 농업 지역 육성 등이다.

그리고 농촌관광·친환경농업특구의 특징은 환경생태적 특화요소를 중심으로 특구 사업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즉 수려한 생태,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체험활동과 농촌관광 등을 결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화요소는 도시민들로 하여금 농촌 및 농사체험과 그린투어의 일환으로 특구지역을 방문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지역이 환경생태적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관점이다. 친환경농업은 농업생태계를 유지 보전하면서 경제성을 추구하는 농업이다. 따라서 환경생태적 특화요소를 가져야 하는 바, 자연 및 생태경관, 전통 문화재, 전통마을 등과 연계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연 및 생태경관이 우수한 청정지역에서 경영되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와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생산지역의 자연 생태적 경관을 보유한 지역이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전통 문화재 및 전통마을의 보존을 위해서는 농약 등 화학적 자재의 사용이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통문화재 및 마을이 있는 지역에서는 친환경농업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Ⅲ. 농촌관광 · 친환경농업 관련 특구에 대한 실태분석

1. 농촌관광 · 친환경농업특구의 규제특례 검토

특구의 규제특례는 크게 특구법상의 규제특례와 법 개정을 통한 확대 규제특례로 구분

된다. 먼저 특구법상의 규제특례는 개별법상의 규제특례 35개, 토지이용 토지규제 25개, 특구의 장에게 권한이양 특례 8개 등이 있고, 법 개정을 통한 확대 규제특례는 일반 규제특례 20개와 토지이용 규제특례 5개 등이 있다.

〈표 2〉 특구유형별 규제특례의 분포

특례조항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특구				농촌관광·친환경농업특구	계
	과실류 및 과채류	한방 및 약초, 차류	장 류	임 산 물		
특구법 제19조					1	1
특구법 제20조	1					1
특구법 제22조	5	4		1	2	**12**
특구법 제23조	8	8		2	4	**22**
특구법 제25조					1	1
특구법 제26조	6	3		2	8	**19**
특구법 제27조					1	1
특구법 제28조	1	2				3
특구법 제29조		5				5
특구법 제31조					1	1
특구법 제33조	3	1		2	3	9
특구법 제36조		1	1			2
특구법 제39조		2	1		2	5
특구법 제40조		1	1		5	7
특구법 제42조				1	1	2
특구법 제43조	5	4	1	1	1	**12**
계	29	31	4	9	30	**103**

농촌관광·친환경농업 특구의 관련 규제특례 수는 모두 30개이며, 관련 규제특례 조항들은 특구법 제26조(8개), 제40조(5개), 제23조(4개) 등이 절반 이상인 56.7%를 차지하고 있다.

특구유형별 규제특례의 분포를 보면, 농지의 위탁경영, 임대·사용대 허가 특례(제26조), 농지전용허가 의제(제40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제23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특구와 상이한 점은 농지 관련 규제특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3〉 농촌관광·친환경농업 특구의 관련 규제특례

특구명칭	관련 규제	특례 수
경남 남해 귀향마을 특구	특구법 제26조제2항(농지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26조제5항(농지법에 관한 특례)	5

특구명칭	관련 규제	특례 수
경남 남해 귀향마을 특구	특구법 제31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40조제1항(농지전용 협의 의제) 특구법 제40조제1항(토지분할·형질변경 의제)	5
전북 고창 경관농업특구	특구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5
전북 남원 지리산웰빙 허브산업특구	특구법 제26조(농지의 위탁경영, 임대·사용대 허가 특례) 특구법 제27조(국유림 매각) 특구법 제39조(농업진흥지역 해제) 특구법 제40조(농지전용허가 의제) 특구법 제40조(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특구법 제40조(산지전용허가 의제) 특구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8
경기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특구법 제19조(도로교통법특례) 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특례) 특구법 제25조(농어촌정비법특례) 특구법 제26조(농지법 특례) 특구법 제33조(도로법 특례)	5
충북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관리법 특례) 특구법 제26조(농지법 특례)	2
경북 영양 반딧불이 생태체험마을특구	특구법 제26조(농지의 위탁경영, 임대·사용대 허가 특례) 특구법 제22조(도로의 통행제한 특례) 특구법 제33조(도로점용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23조(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특례) 특구법 제42조(닭·오리 등의 자가도축 허용)	5

2. 조사대상 지역특구의 주요 사업별 추진정도

<표 4>는 지역특구의 주요 사업별 추진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사업추진율이 대체로 높은 특구는 B특구이었다. E특구는 축제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관광 안내물 설치사업은 90%, 생태마을 조성 50%, 곤충마을 조성 30%의 사업추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2005년 12월에 지정된 특구 중에서 사업추진율이 비교적 높은 곳은 A특구이다. 이것은 특구를 신청하기 이전부터 관련 사업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데에 기인하고 있다. 예컨대 A특구는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대표적인 산지로서,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의 자발성을 기

초로 하여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지역이다.

〈표 4〉 주요 사업별 추진정도

특구	주 요 사 업 명 (추진정도, %)		
A	• 인증 및 통합브랜드(10)	• 생산기반조성사업(10)	• 친환경 웰빙체험 사업
B	• 재배단지조성(70)	• 종합처리장 설치(10)	• 축제 개최(100)
C	• 밸리조성사업 (변경특구 신청 중)	• 자생식물환경공원 조성 (50)	• 허브농업지구조성(100) • 엑스포개최(준비중)
D	• 경관농업육성사업(20)	• 관광안내시설 설치 사업 (70)	• 브랜드사업(65) • 축제사업(25)
E	• 생태마을 조성(50)	• 곤충마을조성(30)	• 축제(100) • 관광안내물 설치사업(90)

〈표 5〉 지역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특 구	농 협	생산자조직	관련업체	학 계	기 타	계
A	×	○	×	○	○	3
B	○	○	○	○	○	5
C	×	×	○	○	×	2
D	○	○	○	○	×	4
E	×	×	×	×	○	1
계	2	3	3	4	3	15

<표 5>는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지역특구사업은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규제의 완화를 포함한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더욱이 지역특구사업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역특산물과 자연적 및 환경·생태적 자원뿐 아니라 노동력 및 자본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지역활성화 전략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지역농업의 주체인 지자체와 농·축협 및 생산자조직, 학계, 관련업체 간 연계(클러스터링)가 중요하다.

조사대상 지역특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업주체는 평균 3개이다. 기관별로 특구사업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체는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회) 등 생산자조직과 관련업체이며,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은 주체는 농협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구별

로는 5개 기관 모두 참여하고 있는 사례는 B특구이었고 1개 기관만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E특구이었다.

조사대상 특구에서는 특구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사업으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조달하고 있다. A특구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E특구는 경관보전 직불제를 받고 있으나, 이것은 농가에게 직접 지불되는 것으로서 지자체의 사업비와는 관련이 없다.

〈표 6〉 지역특구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농림업 지원사업

특 구	사 업 명	
M	• 토양개량사업 • 친환경직불제	• 천적활용 해충 박멸 사업
N	• 고추종합처리장시설사업	
O	• 식물원 조성, 체험장 판매장 등 • 허브연구센터 건립	• 허브제품 가공공장 지원
P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 청정농산물 테마파크조성 사업
Q	• 경관보전직불제	

3. 특구사업 전후의 경제적 효과

농촌관광·친환경농업특구사업 전후의 경제적 효과를 관련 매출액, 재배면적, 시설설비투자 측면에서 조사, 정리한 것이 <표 7>이다.

특구별 사업 전후의 효과는 B특구의 경우, 매출액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100.0% 증

〈표 7〉 특구사업 전후의 매출액·재배면적·시설설비투자의 변화

구분	매출액(억)			재배면적(ha)			시설설비투자(억)		
	이전	이후	증가율	이전	이후	증가율	이전	이후	증가율
A	-	-	-	1,500	1,700	13.3	-	-	-
B	10	20	100.0	1,600	1,650	3.1	20	30	50
C	-	-	-	-	-	-	-	-	-
D	-	50	-	-	19.6	-	-	-	-
E	-	-	-	-	-	-	-	-	-

가하였고, 재배면적은 1,600ha에서 1,650ha로 3.1% 증가하였으며, 시설설비투자는 20억에서 30억으로 50.0%가 증가하였다. 이외의 특구에서는 현재 사업 추진 또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정량적 결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8>은 농촌관광·친환경농업특구사업 전후의 경제적 효과를 관련 업체수, 고용인력, 관광객 수의 변화 측면에서 조사, 정리한 것이다.

관련업체의 증가는 A특구와 B특구에서 각각 29.4%, 16.7% 증가하였으며, 고용인력은 E특구에서 100.0% 증가하였으나 그 수는 9명으로 많지 않다. 그리고 농촌관광·친환경농업특구의 환경생태적 특화요소를 활용하여 관광객 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A특구와 D특구의 경우 사업 이전에는 관광객이 거의 없었으나 사업 이후 각각 30만명, 70만명 정도로 증가하였고, B특구와 E특구 역시 각각 122.2%, 3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특구사업 전후의 관련업체 · 고용인력 · 관광객의 변화

특구	관련업체(개소)			고용인력(명)			관 광 객		
	이전	이후	증가율	이전	이후	증가율	이전	이후	증가율
A	17	22	29.4	-	--		-	30	-
B	30	35	16.7	150	150	0	4.5	10	122.2
C	-	-	-	-	-	-	-	-	-
D	-	3	-	-	1,000	-	-	70	-
E	-	-	-	9	18	100.0	0.9	1.2	33.3

4. 농촌관광 · 친환경농업 특구의 특화요소

1) 경남 남해 귀향마을 특구

경남 남해군은 남해도와 창선도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해도는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섬으로 1973년에 남해대교가 개통되었고, 1980년 창선교 개통, 2003년 4월 창선·삼천포대교가 개통되면서 사통팔달의 육지와 상호 교통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남해군은 위도상 남쪽지역이며,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후가 온난하다. 또한 연평균기온이 13.9℃ 내외로 온화하며, 우리나라 3대 다우지역의 하나로서 연평균강수량은 1,722.6mm에 달한다. 식생은 비자나무·치자나무·유자나무 등과 같은 아열대성 식물이 자라고 있다. 특히 비자나무는 미조면 난음리, 치자나무는 남면 임포리, 유자나무는 설천면 문항리와 문의리 등지에서 자연적인 숲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생태적 유리성으로 인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하며, 빼어난 해상경관

과 청동기유적지 등의 많은 문화재들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남해의 임야면적은 68%로 우리나라 섬 중 산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면서 농지는 23%에 불과함으로 인해 발달된 계단식 논도 관광자원으로 특화되어 있다.

〈표 9〉 경남 남해 귀향마을 특구의 특화요소

구 분	특 화 요 소
■ 지리적 특화요소	- 남해도와 창선도 두 개의 섬으로 구성 - 원활한 육지와의 상호 교통체계망
■ 환경생태적 특화요소	-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해역 - 연평균기온이 13.9℃ 내외 온화청정 - 계단식 논, 해상경관 및 청동기유적지 등 다양한 문화재의 분포
■ 생산적 특화요소	-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확대
■ 기타	

2) 전북 고창 경관농업특구

전북 고창군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로 수도권, 중부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며, 전북 지역 내에서의 접근성도 용이한 편이다. 또한 낮은 구릉지로 완만한 지형지세를 가지고 있어 구역마다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평지이다.

고창군 특구지역(선동지구)은 예전저수지와 30만평에 달하는 청보리밭, 밀밭, 메밀밭이 조화를 이루어 수려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50여만평의 경지에서 친환경농업(전체 밭면적의 60%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0〉 전북 고창 경관농업특구의 특화요소

구 분	특 화 요 소
■ 지리적 특화요소	- 서해안고속도로 개설로 수도권, 중부권 접근성 용이 - 완만한 지형지세
■ 환경생태적 특화요소	- 예전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수려한 경관 - 겨울 평균기온이 0℃로 온화한 기온분포
■ 생산적 특화요소	- 30만평의 청보리밭, 밀밭, 메밀밭 조성 - 50여만평의 경지에서 친환경농업 실천
■ 기타	-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 - 청보리밭축제 등 다양한 농촌관광

이 지역은 농림부의 정책사업인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대상지로 복합연계개발을 통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창군 지역농업의 다양성을 보전하면서 구릉지를 활용한 경관농업의 도입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 지역혁신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청보리밭 일대를 중심으로 한 경관농업특구의 지정 및 개발은 현재 이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위계획 및 친환경농업개발사업 등과의 연계개발로 그 파급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하다.

3) 전북 남원 지리산웰빙 허브산업특구

전북 남원군의 지리적 여건은 남원의 북동부, 동부, 남동부가 소백산맥에 속하는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산지이고, 국도 3개 노선이 6방향에서 관내로 집산하여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내륙관문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서울에서는 철도로, 광주, 전주, 대구 등지로부터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와 88올림픽고속도로 등으로 접근성이 양호하다.

〈표 11〉 전북 남원 지리산웰빙 허브산업특구의 특화요소

구 분	특 화 요 소
■ 지리적 특화요소	-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산지로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내륙관문적 역할 -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88올림픽고속도로 등 광주, 전주, 대구 등지로부터의 접근성이 양호 -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에 연접 -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 참방의 입구
■ 환경생태적 특화요소	- 산악지역의 수려한 산림·계곡, 내륙지역은 전원경관을 유지 - 사업대상지는 생태자연도 3등급지역 - 산림과 계곡 등 풍부한 자연자원 분포 - 국보, 보물, 사찰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분포
■ 생산적 특화요소	- 허브관련산업은 남원시 제조업의 9.8% 차지 - 사업대상지의 대부분이 초지로 사용되고 있어 허브 재배에 유리
■ 기타	- 세계 허브산업엑스포 개최(2005. 5) - 춘향제 등 다양한 문화제와 행사 개최

환경생태적으로는 산악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개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산지 인접의 주거지역은 양호한 농촌경관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리산을 비롯한 산악, 산림 등의 자연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국보나 보물 및 사찰, 각종 문화유적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춘향제 등 방문자들의 유인요소가 많다.

남원시의 허브관련 산업은 남원시 제조업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판매 순위도

높다. 그러나 유통판매, 서비스 측면에서는 하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크다.

따라서 이 지역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지리산 방문자들에게 허브의 생산, 가공, 판매체계를 연계, 구축함으로서 지역활성화를 추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4) 경기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양평군은 팔당상수원이 위치하는 지역으로 2002년 기준으로 군내 가구수의 1/3 이상(31.3%)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또한 양평군은 광역상수원인 팔당수계지역으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이 전지역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내 타 시·군과는 달리 산업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평군의 지리적 여건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대도시 시장과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다.

환경생태적 특화요소로는 엄격한 개발제한을 들 수 있는데 양평군 전역의 면적이 택지개발이나 관광지조성, 공업입지의 조성이 금지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표 12〉 경기 양평 친환경농업특구의 특화요소

구 분	특 화 요 소
■ 지리적 특화요소	- 대도시 시장과의 접근성이 용이
■ 환경생태적 특화요소	- 택지개발이나 관광지조성, 공업입지의 조성이 금지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
■ 생산적 특화요소	- 지속적으로 구축된 친환경농업의 인프라
■ 기타	- 용문산 관광지 등의 관광인프라도 - 양평친환경농업(YEAM-21) 3단계 8개년사업(98-05)의 경험 축적 - 친환경농업클러스터 구성

양평군은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 인프라를 조성해 왔으며, 이로 인하여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친환경농산물 산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가가치의 창출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양평군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친환경농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친환경웰빙체험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사업의 전문성 확보, 농업생산성 증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충북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충북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는 수도권에서는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고,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인접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지역에서 접근성이 용이하여 농산물의 출하와 내륙관광지로서의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2, 3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여 전형적인 농업지대로 인구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군정에서 농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3〉 충북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의 특화요소

구 분	특 화 요 소
■ 지리적 특화요소	- 수도권과의 거리가 2시간 이내 - 중부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용이
■ 환경생태적 특화요소	- 한강, 금강, 낙동강 등 3대강의 발원지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청정
■ 생산적 특화요소	- 전국 최대의 고추주산지로서 1994년부터 고추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 고추, 담배, 사과, 인삼 등이 특화작물
■ 기타	- 내륙관광지로서의 발전 잠재력 - 괴산청결고추유통센터, 고추생산자협의회 등 산학협력체제 구축 - 괴산청결고추축제 등을 통한 관광

괴산군은 전국 최대의 고추 주산지로서 고추의 생산 및 가공, 유통에 필요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친환경 기능성고추 생산을 위한 산학 차원에서의 연구 개발 및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특구는 생산적 특화요소와 환경생태적 특화요소를 결합하고 유통망을 다변화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지역이다. 특히, 고춧가루 가공산업, 고추장가공산업, 고추 관련 농자재 공장 등의 유치 등 고추 관련 2차 산업과 생산적 특화요소가 결합할 경우, 그 상승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6) 경북 영양 반딧불이 생태체험마을특구

경북 영양 반딧불이 생태체험마을특구는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청정자연환경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리적으로 고산협곡 등 특이한 경관 및 다수의 청정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장수포천의 풍부한 수자원으로 피서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서식밀도가 높아 잘

보전된 서식환경을 보이고 있다.

〈표 14〉 경북 영양 반딧불이 생태체험마을특구의 특화요소

구 분	특 화 요 소
■ 지리적 특화요소	- 특구 대상지가 0~10%의 평탄지역 형성
■ 환경생태적 특화요소	- 고산협곡 등의 특이한 경관 및 다수의 청정관광자원 분포 - 장수포천의 풍부한 수자원으로 피서지로 각광 - 전국적으로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서식밀도가 높고 잘 보전된 서식환경
■ 생산적 특화요소	- 청정자연지역 특성을 살린 고추, 천궁, 산나물 등의 재배가 활발
■ 기타	- 청소년 수련원 및 생태공원, 생태학교가 기 조성 - 공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공장이 거의 전무

지리적으로 지방도에서 분기된 단일도로가 개설되어 있기는 하지만, 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하고 지역연계체계가 미흡하다. 그리고 영양군 전체적으로 산업기반이 축소되고 있으며,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특히, 노년층 중심의 인구분포로 인한 인력부족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매우 불리한 실정이다.

이 특구의 특화요소는 청정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환경생태적 특화요소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지리적 또는 생산적 특화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특구는 생태체험마을 조성 및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농촌체험형 관광개념의 도입, 경관농업지구의 조성, 곤충을 활용한 산업기반시설 조성, 반딧불이 서식지 보전 및 축제 개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Ⅳ. 지역특구의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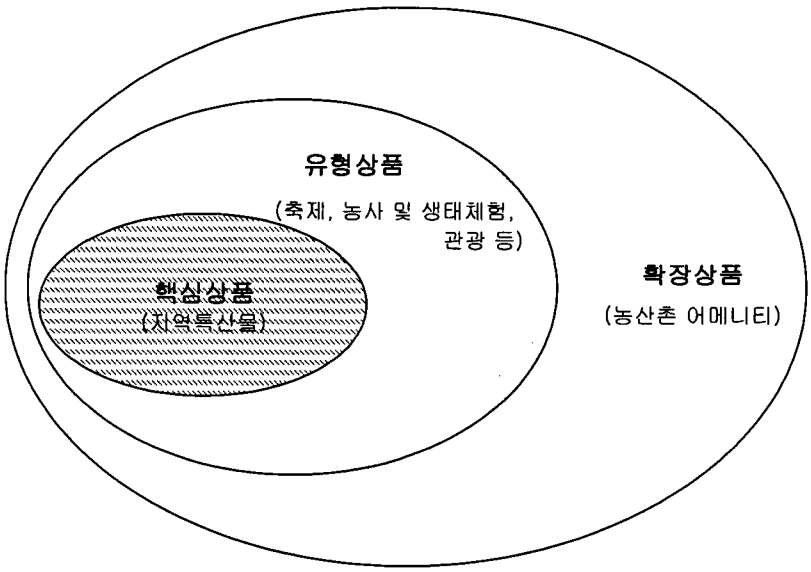
1. 지역특구 이용자 및 수요자 개발 방안

1) 지역특구 상품의 구성요소

어떤 유형이든지 특구의 목적은 지역(농업)활성화이고, 목표는 지역특산물의 수요확대에 의한 농가소득의 증대이며, 수단은 지역특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판매 증대와 홍보 강화 등이다. 여기에서 주요 홍보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축제와 농촌관광 및 견학, 농사 및 생태체험 등이었다. 즉 가능한 한 많은 도시주민을 지역으로 끌어들여 직접 보고

확인하며, 체험하고 느끼도록 하는 방법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구의 지역특산물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구 지역이 공급하는 다양한 상품을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핵심상품과 유형상품, 확장상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핵심상품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상품으로서, 지역농산물 및 가공품이다. 그리고 유형상품은 핵심상품을 구입·소비하는 데에 있어 소비자가 직접 경험하는 상품요소로서, 특구에서 개최하는 축제, 농사체험 및 생태체험, 관광 등을 들 수 있다. 또 확장상품은 소비자가 유형상품을 소비하는 데에 있어 간접적으로 소비하는 지원 상품과 서비스로서, 특구 지역의 농산촌 어메니티이다. 특구 지역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이 위의 세 가지 상품 구성요소를 갖추었을 때 소비자의 효용이 최대화될 수 있으며 그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그림 1〉 특구 지역이 공급하는 상품의 구성요소

이러한 특구지역 상품에 대한 이용자 및 수요자 개발전략을 생산전략 및 유통전략과 촉진전략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 또한 함께 추진되었을 때, 그 성과가 제고될 것이다<표 15>.

2) 생산전략

특구지역의 농산식품 생산전략으로는 소비자 지향적인 농산식품을 생산 공급하는 것과 농산촌 어메니티 서비스를 증진 공급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표 15〉 특구 이용자 및 수요자 개발전략

구분	주 요 내 용
생산 전략	○ 소비자 지향적 지역특산물 공급 - 고품질 농산식품 - 웰빙 친환경 안전 농산식품 - 지역특산물 중심의 다양한 제품군 개발 - 주요 고객 맞춤형 농산식품 생산 및 마케팅 - 상품생산 및 공급의 지속성 : 외부로부터 생산주체(경영후계인력) 유인 ○ 농산촌 어메니티 보전 및 증진 - 자연환경 및 농업경관 보전 - 농촌 및 생태 체험 프로그램 -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의 연계
유통 전략	○ 소비자 신뢰의 구축 - 도농교류 - 품질인증 - 친환경 재배과정 동영상 -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영양성분 및 약리적 효과 표시 -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 ○ 판매방식의 다양화 - 현지 판매 : 지자체 공인 직영판매장 및 상설판매장 - 지역생산·지역소비 : 학교 및 단체급식 등 - 전자상거래 - 지역 판매처에서 타 지역 특산물과 교차 판매 - 유사특구와 연계를 통한 공동마케팅 : 대도시, 해외시장 등
촉진 전략	○ 지역특산물 및 농·산촌 자연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 - 광고 : 지역 내 광고판, 전철 광고판, 언론매체(TV, 신문, 잡지) 광고 등 - PR : 축제, 관광, 견학, 영화 및 드라마 촬영, 무상공급, 사이버전시관, 동영상 등 - 교류 : 농사체험, 생태체험, 자매결연(1사1촌, 1교 1촌) 등

첫째,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한 소비자 지향적 농산식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우선 소비자의 구매특성이 변화되고 있는 바, 신선하고 맛이 좋으며, 안전하고 영양가가 높은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구의 지역특산물은 고품질, 친환경 안전 농산물 등의 특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에 부응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다. 그리고 특구지역에 대한 방문 및 교류가 빈번하고 활발한 주요 소비자에게는 '고객 맞춤형 농산식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특산물의 생산 및 공급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농업경영 후계인력의 충원이 필수적인 바, 외부로부터 생산주체를 유인하는 대책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I-turn이나 U-turn 대책 등이 있다.

둘째, 농산촌 어메니티는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서비스의 하나이다. 따라서 지역의 자연환경 및 농업경관을 보전 증진하며, 농촌 및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산촌 어메니티에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을 연계하여 상품 내용을 풍부하게 한다. 또한 농산촌 어메니티 요소는 지역특산물의 특질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특산물은 그 지역의 특별한 자연환경과 인간, 노동, 기술, 정신 등의 지역적 조건에 따라 생산된 지역사회의 문화적 산물이다. 즉, 그 지역의 유형적 및 무형적 농촌문화와 전통을 흡수하여 생산된 것이다.

3) 유통전략

지역특구 특산물의 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판매방식의 다양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특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는 도농교류를 통한 직접 확인과 농사체험을 통한 경험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친환경 재배과정을 동영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확인시키는 방법도 있다. 또 품질인증은 고품질이라는 신뢰를 주는 공식적인 표시이며, 지역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방법으로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영양성분 표시나 약리적 효과의 표시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역특산물의 공동브랜드를 제작 활용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품질 상품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브랜드화의 이점은 상품의 품질 면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공동브랜드의 효과는 기본적으로는 생산기술의 향상에 의한 품질의 개선과 생산물에 대한 철저한 선별 및 검사, 저온유통체계 등이 수반되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공동브랜드가 부착되고 디자인된 박스는 상품검사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사용하게 하는 것이 소비자의 신뢰를 지속시킬 수 있다.

둘째, 판매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도매시장이나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출하뿐 아니라 지역을 방문한 소비자에 대해 직영판매장 또는 상설판매장을 통한 현지 판매도 추진한다. 이때 판매되는 특산물 및 판매장을 지자체가 공인함으로써, 품질 및 가격 측면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생산·지역소비를 전개한다. 즉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학교 및 단체급식 등에 공급하는 것은 자체 판로 확대의 효과 뿐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식생활 교육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도 추진하는 바, 특구 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있고 지역특산물을 소비해본 적이 있는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인근 특구와 교류를 통해 판로를 확대하는 방법으로서, 상호 지역 내 판매처에서 보완관계에 있는 타 지역 농산물을 교차 판매하는 방식도 있다. 그리고 유사한 성격의 특구와 연계하여 공동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대도시 및 해외시장 등에서 판로를 개척하는 전략이 있다.

4) 촉진전략

특구사업의 촉진전략은 지역특산물 및 농산촌 자연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류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광고와 PR, 교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광고 방법으로서 지역 내 또는 고속도로 및 국도변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지역특구가 규제특례사항으로 신청하였다. 또 실제로 전철 내 또는 전철역에 광고판을 설치하거나 언론매체(TV, 신문, 잡지)를 통한 광고 등도 추진하고 있다.

둘째, PR방법으로서 지역축제나 관광 및 견학 유치 등을 통해 도시 소비자를 지역으로 끌어들여 직접 보고 확인하게 함으로써, 홍보효과 및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제공하여 방문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사이버 전시관이나 동영상의 제공 등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가장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촉진전략은 도농교류 방법이다. 도농교류는 사람과 상품, 정보 및 전통문화 등을 도시와 농촌이 상호 교류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류보다 상위의 개념은 연대 및 제휴(連携)[2]인데, 교류는 기본적으로 양(이동인구 수)으로 평가되는 개념인 반면에 연대 및 제휴는 "도시의 기능과 농촌의 기능이 서로에게 자기의 우월한 기능을 발휘하고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는 관계 즉, 기능의 제휴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농촌과 도시가 상대방의 존재의의를 상호 인정하는 관계를 이상으로 하는 이념"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지역의 유휴지를 이용하고 지역주민의 협조에 의한 도시민의 농사체험, 환경 생태자원을 이용한 생태체험, 그리고 1사 1촌이나 1교 1촌 등 자매결연은 교류를 넘어선 제휴관계의 형성으로 발전될 수 있다.

2. 특구의 특화사업 배치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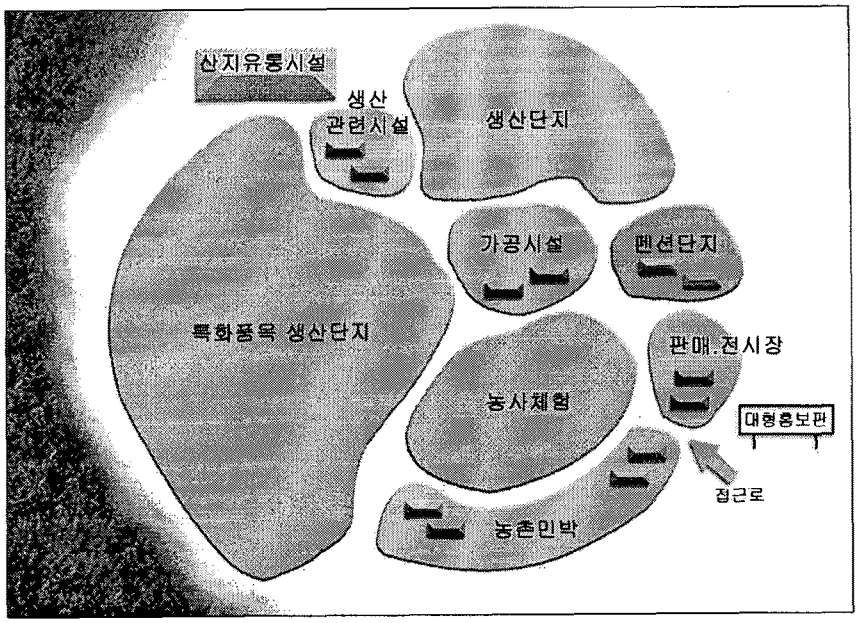
1) 농촌관광 중심 모형

농촌관광·친환경농업특구 중 농촌관광 중심으로 특화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① 남해 귀향마을특구, ② 고창 경관농업특구, ③ 남원 지리산웰빙 허브산업특구, ④ 영양 반딧불이 생태체험마을특구 등 4개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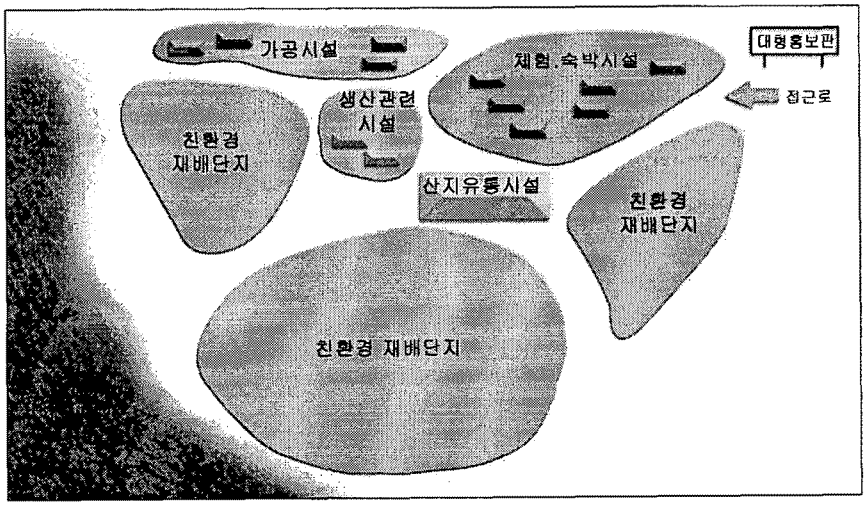
농촌관광 중심 모형은 지역 내 환경생태적 특화요소를 활용, 농촌관광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연계하여 배치하는 모형이다.

---

2) 사전적 의미로서, 연대(連帶)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는 일이고, 제휴(提携)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서로 돕거나 공동으로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2〉 농촌관광 중심 모형의 배치 예시



〈그림 3〉 친환경농업 중심 모형의 배치 예시

2) 친환경농업 중심 모형

농촌관광·친환경농업특구 중 친환경농업 중심으로 특화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①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②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등 2개소이다.

친환경농업 중심 모형은 지역 내 환경생태적 특화요소를 활용,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 농촌관광 등을 연계하여 배치하는 모형이다.

3. 추진전략

농촌관광 관련 특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농촌관광 형태를 지역 여건에 따라 조합하여 추진할 수 있다.[3)]

첫째, 농촌 마케팅 유형의 농촌관광이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 유형으로서 농촌지역의 자연환경 보존과 마을가꾸기 등과 함께 지역농업을 통한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이다. 이것은 도시민들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욕구와 농촌에 대한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 마케팅 유형은 각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및 지역특산물 생산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때 농촌관광은 친환경농산물의 홍보, 체험을 통한 판매촉진 역할을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수요증가와 시장규모의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농촌관광 지역에서 체험 마케팅 추진이 가능하다.

둘째, 농촌경관 휴양단지 유형의 농촌관광이다. 지역의 경관 어메니티와 연계한 경관 상품형 농촌관광은 농촌지역 고유의 토속적인 자연환경과 더불어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산물, 경관 등의 상품화를 통해 소득증대를 추구하는 농촌관광 유형이다. 이것은 지역특산물 판매, 지역홍보,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즉, 특산품이나 주요 경관 어메니티의 개발을 통한 전국적인 지명도 상승이 농촌관광을 통한 관광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다.

셋째, 생태 문화관광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전통 리조트형 농촌관광이다.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의 공통적인 유형으로서 농촌지역 고유의 이미지 제공을 기본요소로 하고, 농촌지역의 생활체험, 농어업체험, 농가민박과 함께 지역유적지, 명승지 등을 패키지(package)로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은 모내기, 벼베기, 농작물 수확하기 등 농사체험, 갯벌체험 등과 같은 생태체험, 인근 사찰 혹은 호수(낚시) 등과 같은 휴양자원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른 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 창출 효과는 미흡하지만, 최소의 투자비용으로 지역 경관 마케팅과 농가의 부가소득 창출이 가능하며, 농촌지역 기반시설 정비라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생태학습형 관광도 장기적으로는 친환경농업 유형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다양한 주변 명승지 등의 볼거리 개발을 통해 고부가 가치 소득창출 산업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역사·문화체험 민속촌형 농촌관광이다. 역사·전통적으로 특성화된 지역에서 역사체험, 산촌체험, 예절 체험 등을 통해서 전통문화의 계승 및 보전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형이다. 이와 같은 유형은 농촌지역에 산재한 지역 유적 및 유물과 문화를 효과적으로 보전 전달할 수 있으며, 지역이미지 홍보와 체험활동을 통하여 역사·문화자원을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는 형태이다. 타 유형과 달리 농사체험보다는 농촌 정주 공간에 대한 체험이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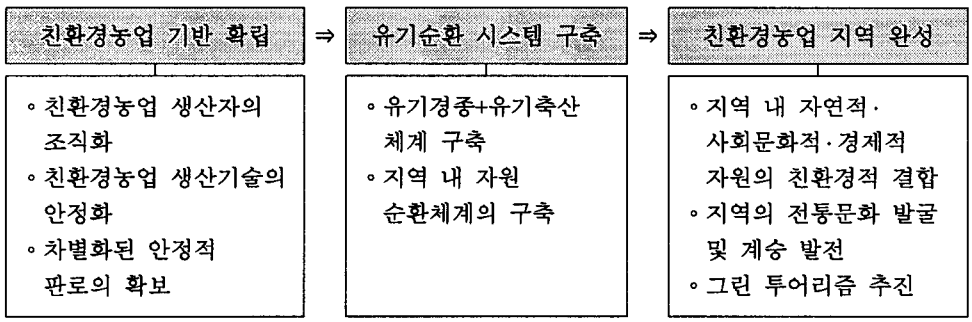
3) 농촌관광은 최국현(2005)을 주로 참조하였음.

이 되는 전통문화 체험관광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과소화된 농촌 지역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기능과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지역의 전통 역사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친환경농업 지역개발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4>와 같은 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다. 가장 기초가 되는 기반은 친환경농업 생산자를 조직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화를 통해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교류하며 상호 협동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선진지역의 기술 도입 등에 의해 생산기술을 안정화시키고 소비자조직 또는 소비지와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 또는 도농공동체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 단계의 추진에 있어, 1차적으로는 인근 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도농간 상호방문 및 교류의 생활화 측면에서 유리성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잉여 친환경농산물의 처리를 위해 가격차별화가 가능한 직매장이나 다른 소비자조직 및 판매조직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친환경 생산시스템 즉 유기 순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지역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즉, 유기경종과 유기축산을 결합한 농업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기농가간 협력을 통해 농업부산물로 영농·사육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유휴자원을 활용하고 부산물 자원의 원활한 순환체계를 갖추며, 지역 내 자원순환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때 유기순환 시스템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 내 유휴자원을 이용하여 경종부문에 신규작물 도입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고, 축산부문에는 사료포와 조사료원(산야초 등)을 공급한다. 또 경종부문에서는 축산부문에 볏짚과 각종 조사료원을 공급하고, 축산부문은 경종부문에 축분을 이용한 유기퇴비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림 4〉 친환경농업 지역특구 추진단계

셋째, 지역 전체를 친환경농업 지역으로 완성하여 그린 투어리즘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자연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상호 결합하여

하나의 테마를 갖추는 것이다. 예컨대 자연 및 환경자원(산지와 숲, 저수지 등), 문화적 자원(지역의 전통문화 및 예술 등), 친환경농업 시스템(친환경농업 생산단지, 자연학습장 겸 농사체험장 등) 등을 하나의 테마로 결합하는 단계이다. 그린 투어리즘 발전에 있어 3대 요소는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인 바 이를 제공함으로써 도농공동체 내의 소비자 가족과 교류를 지속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볼거리는 전통 계승적인 문화관광 자원이고, 놀거리는 자연친화적인 휴양 및 휴식처, 농사체험장, 자연학습장 등이며 먹을거리는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한 안전한 식품 및 지역의 전통식품 등이 될 것이다.

[논문접수일 : 2006. 10. 2. 최종논문접수일 : 2006. 11. 28.]

참 고 문 헌

1. 고창군. 2005. 경관농업지구 확대 및 활성화방안.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7. 신활력지역 발전구상.
3. 김 호. 2006. 아산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4(1).
4. 김 호·허승욱·김태연 외. 2006. 농림업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모델개발. 농림부·단국대학교.
5. 김정호·김태연. 2004.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류선무. 1995. 관광농업의 개발과 경영. 형설출판사.
7. 박시현 외. 2003.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2005. 지역특구 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
9.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2005. 특구유형별 규제특례 적용모델.
10. 재정경제부. 2003.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1. 재정경제부. 2003.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지방순회 설명회.
12. 재정경제부. 200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13. 정삼철·우장명. 2003.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충북개발연구원.
14. 최국현. 2005. 남해군 농촌관광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http://www.kipf.or.kr
16. http://www.sezone.go.kr